



"계집은 남의 것이 곱고 자식은 제 새끼가 곱다"

뜻: 다른 사람의 것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,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예쁜 건 바로 내 자식이라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자식 · 부모 · 사랑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계	집	은	↓	남	의	↓	것	이	↓	곱	고
자	식	은	↓	제	↓	새	끼	가	↓	곱	다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계	집	은	↓	남	의	↓	것	이	↓	곱	고
자	식	은	↓	제	↓	새	끼	가	↓	곱	다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		↓			↓			↓		
			↓		↓				↓	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ㄱㅈㅇ] [ㄴㅇ] [ㄱㅇ] [ㄱㄱ] [ㅈㅈㅇ] [ㅈ] [ㅅㅈㄱ] [ㄱㄷ]

웹에서 보기

